



이긴자 일대기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42화)

일곱째 천사는 생명을 걸고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8절: 일곱째 천사가 완성자로 거듭나는 과정

- 1) 신앙공동체마을과 감람산 정상 오만계단
- 2)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는 신앙생활
- 3) 마귀를 기만하는 하나님의 쇼
- 4) 하늘의 사람을 제거하려고 함
- 5)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분은 하나님
- 6) 신비로운 초능력을 행하다
- 7) 마귀 취급받으면서 자존심을 죽이는 연단

5)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분은 하나님

다섯째 천사이신 영모님은 1차 구속으로 16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고 나오셨지만 출옥한지 정확히 10개월 만에 2차 구속이 되어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다섯째 천사의 2차 구속을 이미 내다보셨던 하나님께서는 10개월 동안 전곡을 순회하면서 설교하던 영모님의 입을 빌려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어떤 세력도 어떤 집안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가는 곳마다 빼놓지 않고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전자는 만한다는 경고성 메시지와 아울러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마21:44)"하는 성경구절이 그 당시 영모님의 설교말씀 중에 항상 언급되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새로 들어선 정권에서도 다섯째 천사를 구속하여 형무소에 수감하는 것이 아닌가? 이를 두고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어떤 변호사가 바티칸의 사인이 있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영모님의 2차 구속날짜는 1961년 1월 27일이었는데요, 그해는 신앙촌의 식수와 공장용수를 대충 수 있는 백여 평이나 되는 거대한 우물이 건설대원에 의해서 한창 만들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2차 구속 직전에 영모님은 수많은 건설대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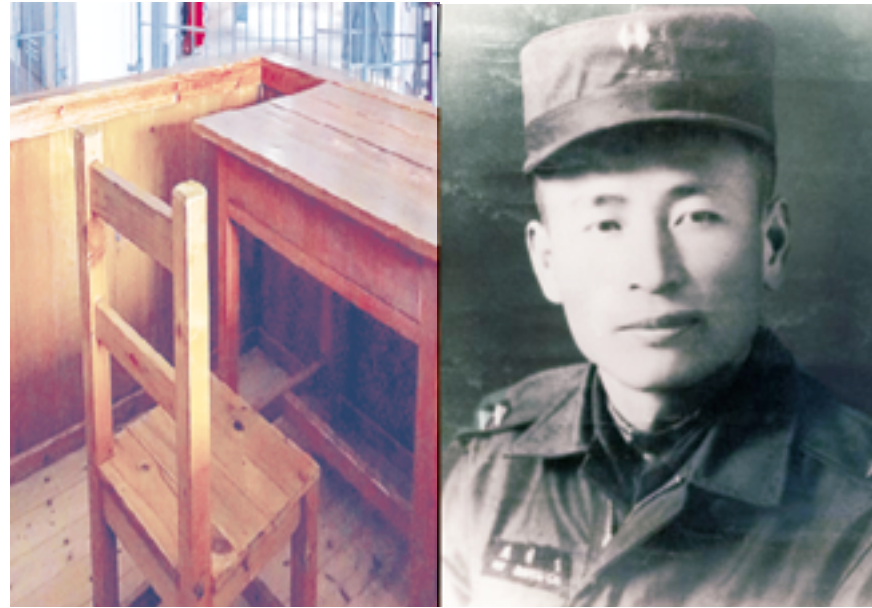
인찰을 해주시면서 동시에 마치 두 손이 쇠고랑에 찬 것처럼 포츠를 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되어도 변치 않고 따르겠느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현역 중위신분에 있었던 일곱째 천사는 매일 뵈던 영모님께서 옥중(獄中)에 계시면서 직접 죄을 수 없게 되자 너무나 보고 싶어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재판이 열리는 날, 목숨을 내걸고 영모님을 구출하려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던 영모님은 조 중위의 장교복에 무엇을 입고 있는지 아시고 뒤로 돌아보시고는 방형석에 앉아 있는 일곱째 천사를 바라보며 고개를 가로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일곱째 천사는 한 번 결의한 것을 실행하려고 다짐하니까 그때마다 피고석에 앉으신 영모님은 뒤돌아보면서 고개를 가로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여 마음을 바꾸니, 그제야 영모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곤 다시는 뒤돌아보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곱째 천사는 생명을 걸고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2차로 구속되신 다섯째 천사 영모님의 결심 언도 공판날짜가 5월 16일로 잡혔습니다. 최 법무장관의 사형이 집행되고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 결심공판이 있기에, 많은 교인들은 흑여 종교적인 사건으로 교권주의자들의 개입에 의해서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까 하여 내심 걱정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행거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런 생각으로 위안을 삼고 있었습니다.

"너, 집에 가지 말고 곧바로 온양재단으로 가라! 내가 오늘 온양재단 전도사로 발령한다."

그런데 일곱째 천사 조 중위는 영모



1961년 당시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중에 계신 영모님을 면회할 때 중위 조희성님

님을 두 번째 옥중에 투옥시켰을 때 결심하였습니다. 그것은 장면 내각정권을 뒤집어엎고 내 생명보다 억척만 배 귀한 우리 영모님을 옥중에서 구출하고 영모님을 중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전도관 천지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전국 전도관 대학생회장이 100관장과 몇몇 청년 간부들 유00, 민00, 박00 등에게 제의하여 서울 원효로에 있는 이만재단에서 전국 전도관 대집회를 열어 교인 일부 몇천 명은 정해진 시간에 원효로에서 출발하게 하고, 또 일부 몇천 명은 마포에서 출발하게 하기로 계획을 짰습니다.

또 몇천 명은 어느 정류소에서 거기 있는 승객 시민들과 합세하여 출발하고, 또 일부는 다른 버스정류소 여러 곳을 선정하여 출발토록 하는 한편 조00를 중심으로 하여 300명의 특별 결사대를 조직, 행정부와 육본 등을 담당하고, 각 경찰서는 헌병대가 점령하도록 하였습니다. 수류탄을 비롯한 탄약 등은 일곱째 천사의 군통기생이 안양 탄약고에 있으므로 연락하여 조달기로 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행동에 옮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 조 중위가 혁명이 성사될 예감을 품

에서 얻었는데, 꿈에 곡괭이를 가지고 호랑이 머리통을 내리찍었는데 그 호랑이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만재단 대학생 회장이 박태국 장로한테 일러주는 바람에, 박태국 장로가 영등포에 있는 일곱째 천사 조 중위 집에까지 찾아와서 "제발 혁명을 일으키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영모님한테 지장이 크다. 영모님한테 크게 누(累)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극구 반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곱째 천사 조 중위는 "안 됩니다! 죄 없으신 우리 영모님을 두 번 씩이나 옥중에 집어넣은 만행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박태국 장로님은 신앙이 없어서 그렇지 영모님이 옥중에 갇혀 있는데 어찌 가지된 자가 가만히 있을 수만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강경하게 나가니, 영모님의 사모님과 박태국 장로님이 용산 경찰서에 신고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거사가 들끓어 나, 일곱째 천사는 주범으로 지명수배를 받는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이 복잡하게 되면 필히 교수형에 처해질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급히 영어(圜圖)의 몸으로 계신 영모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영모님은 면회하러 온 일곱째 천사 조 중위에게 "너, 집에 가지 말고 곧바로 온양재단으로 가라! 내가 오늘 온양재단 전도사로 발령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영모님의 옥중명령을 받고 온양에서 피신하고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혁명이 일어나니 용산경찰서 형사들이 일곱째 천사 조 중위가 혁명주체세력인 줄 알고 찾아와 점심을 같이 하자고 하는가 하면 잘 부탁한다고 하기에, 일곱째 천사는 "나는 혁명주체세력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적도 있었습니다.

5.16혁명을 모의한 장소가 수색되며, 난지도에서 육지 쪽에 산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호텔이 전부 독립기구로 조그마한 집으로 여기 저기 있었습니다. 그 혁명주체가 일곱째 천사 조 중위를 그 모의하는 장소까지 데리고 가서 같이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곱째 천사는 거절하였습니다. 그 당시 정권은 너무 무능하고 너무 약했기에 누가 혁명을 일으켜도 성공하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거사를 할 때 영모님께서 영적으로 지시를 하기에 두려울 것이 없이 그대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세상 정권을 잡고 이 영생의 역사를 펼치려고 했는데, 그 1차 목적이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방해하는 바람에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영모님의 옥중고난을 통해 여섯째 천사 해와와 일곱째 천사 아담을 이긴자로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한편 다섯째 천사 박태신 장로님의 결심공판일이 되자 소사 신앙공동체 마을의 교인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정동

대법정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앙공동체 마을 내의 광고 안내 확성기에 계속 무엇인가 떠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하여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혁명공약...' 뭐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정문으로 나가면서 경비원들에게 물어보니 그 경비원들의 말이 오늘 새벽에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 이 정권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렇다면 영모님의 재판은 어찌 될 것인가?"하고 공궁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좀 상식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그야 영모님 재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라고 하면서 "하늘이 심상치 않은 영모님 재판을 못하게 뒤집어넣은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섯째 천사이신 영모님께서 공궁권세를 잡은 마귀 신의 공격을 받고 두 번씩이나 옥중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영모님의 옥중고난을 통해 당신의 참 가지인 여섯째 천사 해와와 일곱째 천사 아담을 이긴자로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곱째 천사 조 중위는 영모님께서 옥중에 들어가시니 한층 더 사모가 되고 보고 싶어졌으며 논산훈련소 근무지에서 열차를 타고 올라와 서대문 형무소에서 면회를 하게 되면, 당시에는 책상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 앉아 보면서 면회를 했는데 영모님께서 일곱째 천사 두 손을 붙잡고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씩 목을 놓고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면회시간은 20분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간수부장이라든지 간수들이 옆에서 너무 슬프게 우는 모습을 보고 시간이 다 됐다는 말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박한수



임문수기

정도령이 나오면 좋은 세상 된다는 외조부 말씀, 마음에 새겨 뒀(上)

나는 외가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어머니가 김해 김씨 경파 가문의 무남독녀였다고 아버지가 외조부의 테일사위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외할아버지는 배움이 많은 분이 아니었지만 한글과 고문(古文)을 읽을 줄 아셨다. 부모님은 들에 나가 농사일을 하시기 때문에 자연 외할아버지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다. 저녁때가 되면 동네 어른들이 사랑방으로 불러 오셔서 외할아버지보고 이야기 책을 읽으라고 하였는데 외할아버지의 책 읽는 항성(항성鶴聲)의 소리가 좋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조용 전(傳), 유충렬 전, 광해통 전 등을 읽으셨는데 동네 노인들이 긴 담뱃대로 담배를 피워대면 눈이 때워서 찢찢했던 기억이 난다.

어린 시절 겪은 전쟁의 참혹함

초등학교에 입학한 1948년 가을에 여수·순천사건이 일어났다. -제주4·3사건과 함께 해방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좌익과 우익의 대립으로 빚어진 민족사의 비극적 사건이다. 이승만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강력한 반공국가를 구축하였다. 흔히 여수·순천사건이라고 하였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란의 주체라고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하여 1995년부터는 '여수·순천사건' 또는 '여수·순천

10·19사건'이라고 사용한다.[네이버 지식백과]

다음날 낮에 밖에 나가보니 골목길과 신작로 길가에 사람 죽은 시체를 긴 가마니로 덮어놓은 것이 보였다. 그때 반란군들은 경찰 가족이나 공무원 가족, 동네 부자들을 주로 죽였다고 한다. 참혹한 광경이었다.

그 후 초등학교 3학년 때에는 6.25 전쟁이 터졌다. 7월 하순 경 여름 한창 더울 때였다. 이웃집에 있는 큰 감나무 그늘에서 동네사람들과 같이 더위를 식히고 있는데 갑자기 순천 시내 쪽에서 광광광! 하는 요란한 폭음소리가 20리 이상 떨어진 해룡면에까지 들렸다.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땅도 흔들렸다. 집에 와서 보니 선반 위에 얹어 놓은 물건들이 방바닥에 떨어져 널브러져 있고, 등잔불 석유기름 종자기도 없어져 있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폭음이었다. 그 폭음은 나중에 알고 보니 경전선 순천 철교를 끊어버리기 위해 미군 B29 비행기에서 폭탄을 대량투하한 것이었다. 그 후 인민군들이 우리동네에까지 들어와 이웃집 사랑방을 빌려 그들의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전쟁을 수행하였다.

나는 어린 시절 좌우의 간의 전쟁을 두 번이나 겪은 셈이다. 삶과 죽음이 오가는 그 전쟁 속에서 어린아이였지만



1991년 본부재단 헌당예배 때 찍은 김로이슬 사진(오양현 장로 촬영). 천도복숭아 모양으로 촬영된 것은 소사기 복숭아의 고정이며 무릉도원에는 복숭아가 있다는 것과 맥락이 닿아있다

그 참혹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폭격이 있었던 날 잠자리에 들기 전 외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도령이 오시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했다. 그분이 언제 오실 지는 잘 모르겠다. 나도 정도령을 만나고 싶지만 나는 나이가 많아 그분을 못 만날 것 같다. 아마 손자 되는 너희 대(代)에나 혹 정도령을 만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몹시 아쉬워하셨던 것이 기억 한구석에 남아 있다.

나는 장남으로서 남동생이 2명, 여동생 1명이 있다. 동생들 셋 다 순천 M중고를 졸업했는데 그 학교는 기독교 계

통이므로 동생들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어머니도 동생들의 전도를 받고 순천 B교회를 다니셨다. 온 집안 식구들이 교회를 다니다보니 나를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였다. 어머니는 내 명의로 교회에 계속 헌금을 했다고까지 말씀하면서 교회 가기를 권하셨다.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가지 않았고, 외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정도령이 오신다는데 그분을 만나려면 교회에 갈 수가 있지 않았던 것이다.

제대 후 계관장사를 시작하다

1963년 8월 한더위에 논산훈련소에

입대 진해수송학교를 거쳐 부산 제3항만사에 배치되었다. 우리 부대는 1964년 월남파병 시 비둘기부대, 맹호부대, 청룡부대의 장비를 3부대에서 선적하는 일을 하였으며, 부산수영부대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군에 인계되는 미사일(SAM) 장비를 검수하는 일을 하는 등 나의 군대생활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일, 즉 월남파병과 미사일 인수가 내 손을 거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생활이었다고 생각된다.

1966년 2월 군에서 제대한 후에는 마땅히 할 일도 없었고 금방 취직도 할 처지도 못 되어 뭘 할까 고민하던 중, 닭 200수만 기르면 농촌에 중농(中農) 정도의 수입이 된다는 말을 듣게 되어 닭 200수를 주문하여 길렀다. 내가 아는 선배 한 분도 초등학교 교편생활을 하다가 사표를 내고 닭을 길러 정도도 수입이 괜찮을 거라는 소문이 단시간에 널리 퍼져 나가서 너도나도 닭을 기르는 바람에 공급과잉으로 계관값이 폭락하여 판로가 막혀버렸다. 당시 큰 계관 1개 값이 칠팔 원, 작은 계관이 삼사 원이었는데 쌀인 계관을 소비하기 위해 서울로 거래하는 상인에게 팔았던니 가격을 쳐주지 않아 손해가 많았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다 팔아먹겠다 싶어서 직접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당

시는 식당이나 음식점이 별로 많지 않아 계관을 수요로 하는 곳이 적어서 몹시 고전하였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 펠생사업이 되었다.

그런데 계관 장사를 하다 보면 파란(깨진 계란)이 많이 나온다. 그 파란을 먹기에는 너무 많고 그렇다고 남는 것을 그냥 버리기 아까워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파란을 개에게 자주 주니까 먹기는 잘 먹는데 그만 개가 이질병인 파보에 걸렸다. 개를 치료해 주려고 펠소 알고 지내던 송 수의과 의원을 찾아가 갔다. 송 원장은 개에게 주사를 놔주고 약을 준 후 "어이, 동생! 정도령이 나왔네. 이거 한번 읽어보소." 하면서 책과 전단지를 보여 주었다. 그 책의 제목은 한자로 정도령(征道令)이라고 쓰여 있었다. 전단지도 정도령에 관한 내용이었다. 송 원장도 관심은 있는 모양인데 바빠서 더 이상 알아볼 엄두는 내지 못한 모양이었다. 몹시 반가웠지만 표현은 하지 않았다. 책을 보니 할아버지 말씀대로 '드디어 정도령이 오셨구나!' 생각이 들면서 39년 전 10살 때 외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그 정도령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뜨면서 기쁨이 올라왔다.* 오양현 / 순천재단 책임장로